

# 독서감상문

읽은날짜	3 월 26일	이름	홍유리
도서명	불완전한 나에게	글쓴이	파울로 스키타로
나의 감상	<p>이 책은 천주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제일 첫 번째 내용에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나도 앞으로 상처를 없애려고 하기보다 감사만 아서 진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p>		
기억에 남는 문장	<p>우리 하느님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p>		

# 독서감상문

3. 27 인문학

읽은날짜	3 월 27 일	이름	채소음
도서명	불완전한 나에게.	글쓴이	파울로 스킨치츠
나의 감상	<p>이 책은 짧책이다. 하나님 이야기와 처음엔 조개를 비유하여 상처와 위로 해주는 느낌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가지 않았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위로 해주는 말이 너무 따뜻하게 전해졌다. 그리고 처음에 제목이 너무 좋았다. 내가 힘들때 내 옆에 있어줄것처럼 느낌이 나서 좋았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 작가가 쓴 책이 아니라서 생각을 하니 좋았다. 그래서 이 책이 외국에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살짝 왜일까? 라는 생각도 했다. 제목처럼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면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좋게 책이 권될 일이다 알았다. 그래서 신기했다. 요즘 책을 읽으며 위로 받고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 곁에 있다고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다. 2/2</p>		
기억에 남는 문장	<p>상처가 없는 순수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처가 정말 생가지 말았음 한다.          빛나고 귀한 진주는 조개가 상처를 입을때 고동속에서 태어난다.          우리도 진주이고 각자 멋진 힘을내자고 하고 싶다.</p>		

# 독서감상문

읽은날짜	3월 26일	이름	권보민
도서명	불완전한 나에게	글쓴이	파울로 스킨차조
나의 감상	<p>이 책은 종교책이다.          인문학에서 처음으로 종교학을 읽어본 것 같다.          생겼다. 그리고 이쁜 발음이 많은 것 같다.          책 첫 내용에 진옥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진옥은 조개가 상처를 받아야 비로소 이쁜          진옥이 생긴다고 하였다.          처음 들은 내용에서 신기하기도 하였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특히 이 글 내용 중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헷갈리고 상처가 아물기 힘들어          때문이다. 이 내용을 읽고 부정적인 감정도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태워야 할 것이란          것을 새로 알게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p>		
기억에 남는 문장	<p>우리 안팎의 관계에 존재하는 한계, 상처, 비극은          그림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p>		

# 독서감상문

<인문학>

읽은날짜	3 월 27 일	이름	이은서
도서명	불완전한 나에게	글쓴이	따올로 석사도.
나의 감상	<p>이 책은 종교에 관한 책 같다.          천주교에 해당하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매우 신앙적인 것 같다.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도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희생을 더 자극한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 보다 영사적 내용이라 신앙이 더해진          글을 읽는게 더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글도 많았다.  <del>이</del> 제목부터가 <del>이</del> 심상치 않은가.          '불완전한 나의 존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걸 জান고 싶은 것이          목적인 책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p>		
기억에 남는 문장	<p>'<u>이제까지 완성을 추구하며 버티려는가.</u>'          ↳ 완성을 추구하며 애쓰기 보다 자신의 특기를 취하며 살아가는게          더 자신에게도 이득이고, 현대 사회에선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 때문이다.</p>		